

“총림다운 총림 만들자” 움직임 본격화

조계종 총림실사위원회 첫 회의... 8대 총림 실사

조계종이 내년 1월 해인사, 통도사, 백양사, 수덕사, 백양사 등 기존 5대 총림과 범어사, 쌍계사, 범어사 등 3대 신규 총림을 대상으로 한 실사에 들어간다.

총림실사위원회(위원장 원학, 이하 실사위원회)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기존 5대 총림과 신규 3대 총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실사위원회는 총림 구성요건과 임회 운영, 주지후보 추천 과정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총림상과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안을 위원회 운영 기조로 삼기로 했다.

실사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 1일부터 7일 열린 조계종중앙총회 제192회 정기회에서 기존과 신규 총림이 모두 종현에 따른 총림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종회의원 원학 스님을 위원장으로 범진, 정적, 성직, 해해, 범해, 장명, 주경, 종민, 상하 스님과 총무부장 지현, 기획실장 능도, 교육부장 범인 스님 등이 위원으로 참석·구성됐다.

총림 실사위는 첫 회의에서 12월 말까지 8대 총림에 현황과 운영 방향, 문제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1월 15~19일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현장 조사는 2개 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1반은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를, 2반은 수덕사, 해인사, 백양사, 송광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안 개선방안 제안 받고

내년 1월 15일 총체적 조사

“현실 맞는 기준 마련해야”

총림특위, 총림법 개정 준비

또한 2월 중 연찬회를 개최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3월 열린 예정인 정기 중앙총회에 총림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장 원학 스님은 “기존, 신규 등 8대 총림 모두 종현에 명시된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며 “총림에 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여론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직 스님은 “출가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염불원, 율원 등은 사



조계종 총림실사위원회는 11월 2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5~19일 기존, 신규 8대 총림을 실사하기로 결의했다.

실상 운영이 어렵다”며 “시대에 맞고 현실적인 총림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실사 역시를 이런 어려움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범인 스님도 “총림 실사는 총림의 전반을 점검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총림이 종단과 불교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며 “종합 수행도량이라는 총림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현대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범안)도 11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총림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온 임회 구성과 방장 권한 축소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림실사위는 활동계획과 일정, 범위 등을 결정하고 1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2차 회의는 실사 하루 전인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10.27법난위 정상화 ‘급물살’

현역군인 12월 중 철수... 정각회 법안 개정 추진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파견된 현역 군인들이 12월 안으로 원대복귀한다. 이로써 내용으로 갈등을 빚었던 10.27법난피해심의위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현역군인 철수, 지원단장 업무복귀 등에 관한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11월 22일 국방부 김광우 기획조정실장이 10.27심의회 위원장 지현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을 예방하고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지현 스님은 “지난 주 국방부 관계자가 방문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철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함께 법 효력시한 폐지, 종단 전체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10.27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가 추진된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회장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측은 13명의 정각회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의원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은 법 효력시한을 삭제하고 사건의 책임을 국가로 명시하며, 보상조항 등을 새롭게 넣었다. 특히, 내년 6월30일로 정한 부처조항을 삭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여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27법난의 기해 주체를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에서 국가로 확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사건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 제1호) △10·27법난 사건의 피해자의 범위에 강제로 연행·수사·구금을 당한 자와 감압에 의하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부여한 직위에서 해직된 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 피해자에 대하여는 보상 결정시까지의 범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은 사망 당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종교단체에 귀속하고, 그 밖에 보상 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2부터 제4조의 7까지) 등이다.

정혜숙 기자

새롭게 도약하는 군불교 기대

44주년 군승의 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11월 30일 AW 컨벤션센터에서 ‘제44주년 군승의 날’ 행사를 봉행했다.

교구장 자광 스님은 봉행사에서 “신축 불사를 마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청년포교의 거점으로 삼고, 포교의 책무를 소홀히 여지지 않고 위법망구의 자세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포교원장 지원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군종교구

가 중심이 돼 이룬 호국연무사 대적불사의 역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군포교에 더욱 매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무원장상은 육군사관학교 해산 박동진 법사가 포교원장상은 제2작전사령부 경제 강익중 법사가 포교원장상을 수상했으며, 13명의 군승에게 군종교구장상이 수여됐다. 또한 108산사순례단을 이끌고 있는 도선사 주지 선묵해자 스님과 파주 보문원 주지 지행 스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신종일 기자
관련 칼럼 31면

도로명주소 반발한 천장사, 지명 찾다

서산시, ‘천장사길’로 변경

지난해부터 불교 및 문화시민사회단체들에 반발을 산 정부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대안을 서산 천장사가 마련했다.

서산 천장사(주지 허경)는 11월 24일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가 어렵고, 지역 특색에도 맞지 않아 꾸준히 이의를 제기한 결과 ‘서산시 고북면 천장사길 100’으로 지적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경허 스님의 오도보림 도량이자 만공 스님의 출가처인 천장사의 원래 주소는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1번지’였으나 지난해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서산시 고북면 고요동 1길 93-98’로 변경됐다. 고유

지방색이 없어지고, 주소 또한 번거롭게 변하게 됐다.

이에 새로 부임한 주지 허경 스님은 주소 변경을 서산시에 청원했으며, 담당자와의 통화, 서산시청 방문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대해 허경 스님은 “천년 역사의 천장사에 사찰명이 들어가는 주소를 가지게 됐다. 아직도 새로운 주소명에 사찰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외유구 힘든 도로명 주소를 가진 사찰이 많을 것”이라며 “천장사의 사례를 참조하면 모든 사찰들이 사찰명이 들어가는 주소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산스크리트 교재 범보시

교종본찰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정수)가 ‘산스크리트 문법’을 펴내고 무료 범보시에 나선다.

봉선사가 지난 7월 설립한 ‘산스크리트 편집실’은 최근 ‘제1차 산스크리트 교재’인 《산스크리트 문법》, 《우빠니샤드》, 《뻬짜판뜨라》를 펴냈다.

《산스크리트 문법》은 산스크리트 문법의 초급과 중급 과정을 익힐 수 있는 문법서로 480 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우빠니샤드》는 인도철학의 근원인 우빠니샤드 가운데 초기 18책을 모아 여학적으로 문법을 분석하고 번역했으며, 세계 최초 우화집인 《뻬짜판뜨라》는 이슬람 우화의 원류로 주목되는 소중한 책이다. 《산스크리트 문법》은 편집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12월 중 세 책 모두 PDF 형태로 공개된다.

한편, 봉선사 산스크리트 편집실은 2013년에는 ‘제2차 산스크리트 교재 및 제1차 뻬알리 교재’를, 2014년에는 ‘제3차 산스크리트 교재’를 발간할 계획이다. (031)527-1956 신종일 기자

지도자급 스님, 특정후보 지지 논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둔 가운데 불교계 지도자급 스님들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잇달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태고종 전국보국회와 전국신도회는 11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박근혜 후보는 전륜성왕의 지혜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갖춘 국가지도자”라며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면 불교관련 규제법령의 완화와 한국 불교 전통문화유산의 세계화에 대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은 종단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총무원장 청봉, 신촌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와 신도회 임원들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공식 지지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후보에 대한 지지는 군소종단들로도 이어졌다. 한국불교 여래종 중정 인왕 스님, 대한불교조계종협의회 이사장 지산 스님

등 군소 종단 지도자 27명은 11월 29일 ‘범불교 지도자’ 명의로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불교종단진흥회(회장 해인)도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 통일을 이끌어 인물은 박 후보가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사)대한불교

태고종·군소종단 박근혜 지지

종단총연합회 문재인에 가세

헌법 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신도들 의견 양분화 우려돼

종단총연합회 스님 150여 명이 11월 22일 민주통합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포교원 전법단장 계성 스님은 지난 10월 공개적으로 박근혜 선거 캠프 지도 범사를 맡아 문제가 됐으며, 당시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캠프에

스님들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선거 캠프에 참석한 모든 스님들은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불교 지도자를 자칭하는 스님들의 잇달은 특정후보 지지를 지켜보는 불자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매번 종교 편향이 발생하면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선거가 되면 헌법에 명시한 원칙을 불교 스스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서강대 교수)는 “종교인이 사석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옹호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공개적으로 그것도 시기적으로 민감할 때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수행자라면 양극단의 지지 선언이 아니라 후보들이 국민과 한국사회를 위한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는 자칫 신도 간 분열도 불러올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해님이, 해맞이 소원등 밝히기

“관봉 석조여래좌상(갯바위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누구나 한가지 소원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선본사에서는 12가지 큰 자비를 항상 행하시어 만 중생을 두루 구제하여 해탈케 하시는 갯바위 약사여래부처님전에서 해님이, 해맞이 소원등을 밝힙니다.
[약사경]에 이르기를 12가지대원 중 세번째가 “중생이 원하는 것을 얻게하는것”이라 하였습니다. 불자들에게서는 해님이, 해맞이 소원등 밝히기에 무루 동참하시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어 바랍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심이상원약사여래불
●동참금 : 5만원

※ 소원성취등은 접수하신 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밝힙니다. 2013년 2월24일 (음력 1월 15일)

종각 및 범종불사

1인 1구좌 30만원
설판시주 100만원

※ 설판시주자는 범종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동 지 기도

입 재 : 불기2556(2012)년 12월 1일(토) 10:00시
회 향 : 불기2556(2012)년 12월 21일(금) 10:00시
동참금 : 3만원

※ 팔죽(말, 찹쌀)공양 받습니다. ※ 달력 불사 받습니다.
※ 동짓날 2013년도 달력을 드립니다.

계좌번호 : 대구은행 179-04-060280-001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문의 : 053)851-1869, 853-9877, 851-1869